

6. 경사로

■ 설치원칙

- 경사로는 휠체어가 복도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에 매우 좋은 대안이다.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.

■ 설치요점

-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, 폭, 바닥의 마감상태, 경사로 참,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.
-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하여 경사로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경사로를 대피로로 사용하기에는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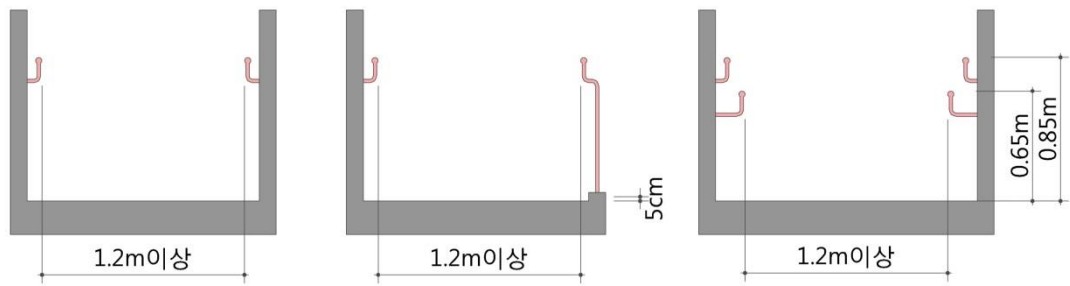
1) 형태 및 유효폭

■ 의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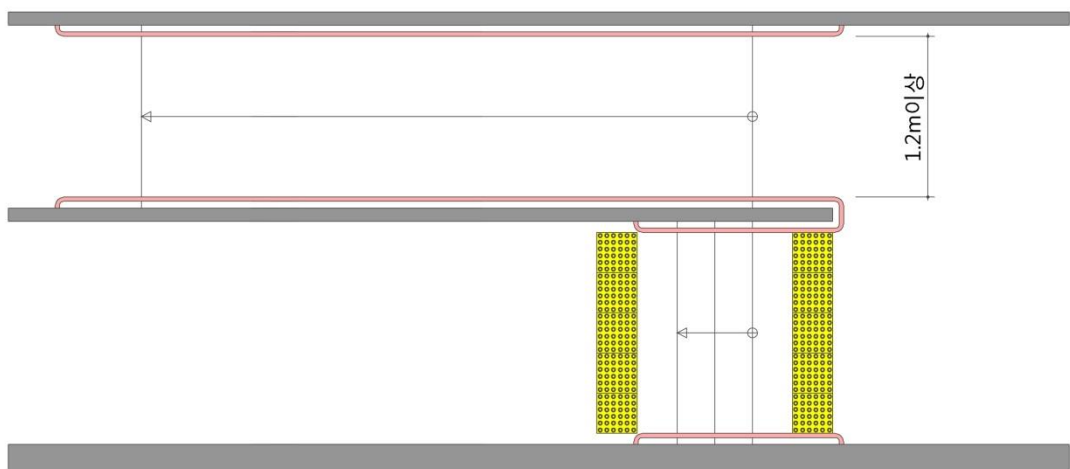
-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며, 1.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 1.2m 유효폭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0.9m 까지 완화 할 수 있다. [편의증진법 12-가-(1)]
-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 [편의증진법 12-가-(2)]
- 시작과 끝 지점, 방향전환지점은 1.5m×1.5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.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 유효폭과 동일하게 완화 가능하다. [편의증진법 12-가-(3)]

■ 권장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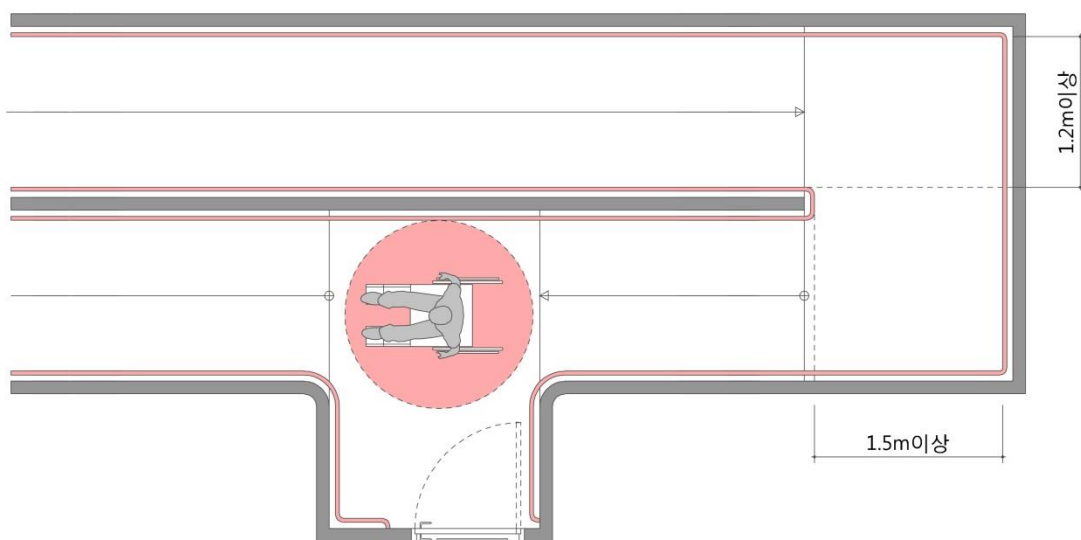
-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이동을 위하여 경사로는 직선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층간이동을 위하여 경사로와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좋다.
-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. [편의증진법 12-마]



<경사로의 유효폭 측정 범위>



<경사로가 계단과 병설된 경우>



<계단 또는 다른 이동로가 없는 경우>

2) 기울기

■ 의무사항

- 경사로의 기울기는 1/12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[편의증진법 12-나-(1)]

■ BF인증

- 편의증진법 [12-나-(2)]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/8 까지 완화할 수 있으나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획득은 불가능하다.

- ①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
- ②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/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움
- ③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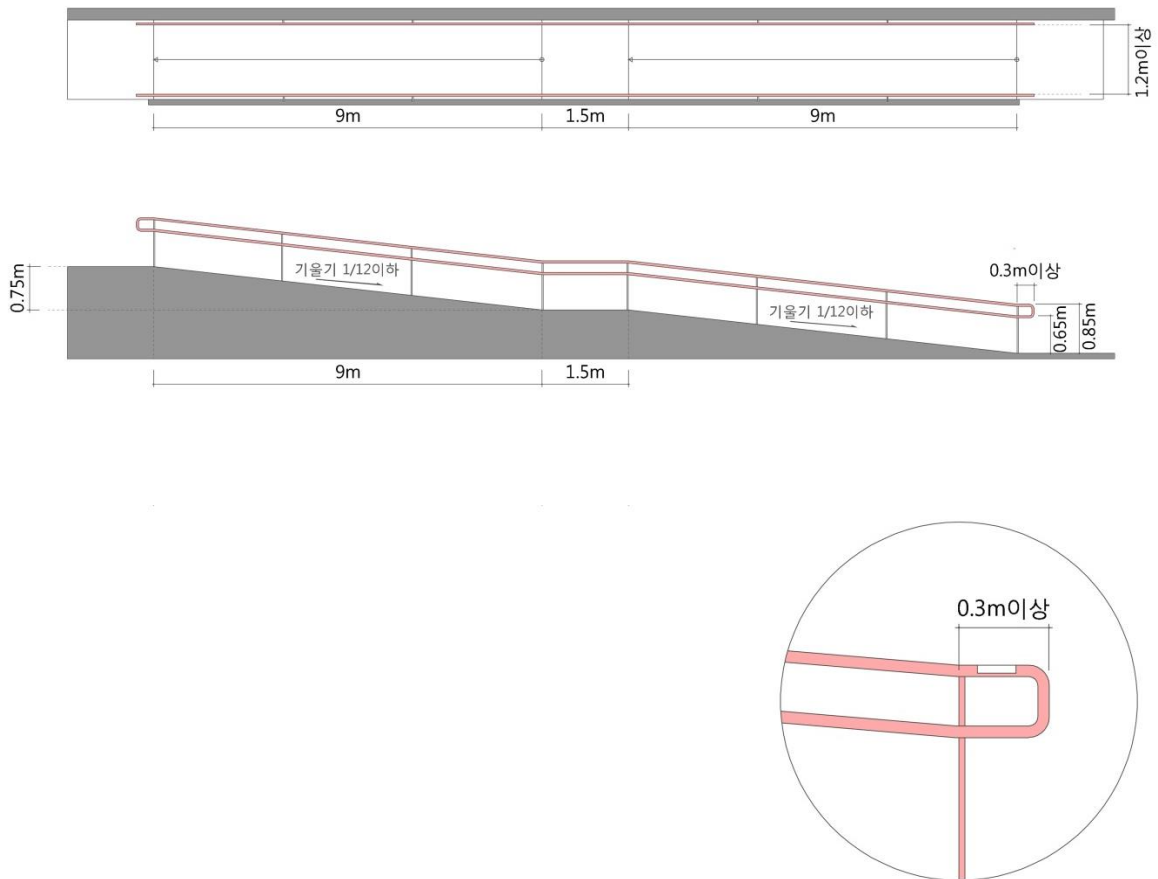
※ 주의사항

- 기울기 1/12~1/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완만한 층간 이동 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.

3) 손잡이

■ 의무사항

- 경사로 길이가 1.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0.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한다. [편의증진법 12-다-(1)]
-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.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연장하여 설치한다. [편의증진법 12-다-(2)]
-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$0.85\text{m} \pm 5\text{cm}$ 이내로 하고, 손잡이의 지름은 $3.2\text{cm} \sim 3.8\text{cm}$ 이내로 한다. [편의증진법 12-다-(3)]



<경사로 기울기 및 손잡이>

4) 재질 및 마감

■ 의무사항

-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 [편의증진법 12-라-(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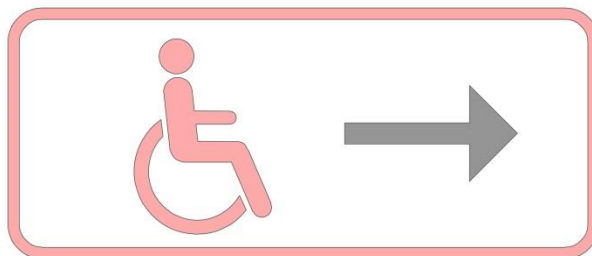
■ 권장사항

- 휠체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,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사로 중심에서 좌우 45° 방향으로 줄눈이 가도록 마감하거나 엇갈린 무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.
- 경사로 양측면에는 높이 5cm 이상의 휠체어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[편의증진법 12-라-(2)]
-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. [편의증진법 12-라-(3)]

5) 경사로의 식별

■ 권장사항

- 약시자, 노인, 어린이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, 질감 등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, 안내하는 표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.
- 휠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로,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분리하여 유도하고 유효폭 1.5m 이하 경사로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것을 되도록 지양한다.
- 경사로 이외의 접근로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 지점, 휴식 참 등에는 경고용 바닥마감재를 0.3m 이상,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<경사로 유도 안내표시>



<경사로 표시>